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최운선**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를 심도 깊게 성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입양인이 경험한 입양부모와의 관계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 ‘인생 멘토와 조력자’, ‘상호 돌봄의 연대’, ‘입양 담론의 개방적 소통 파트너’, ‘이질감과 소속감의 줄타기’ 5개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입양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친생부모와 관련하여 ‘판도라의 상자’, ‘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친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 ‘막연한 재회’ 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 초기 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인 초기 입양인, 부모-자녀 관계, 입양부모, 친생부모, 내러티브 연구

논문 투고일 : 2026. 06. 01. 최종심사일 : 2026. 06. 21. 게재확정일 : 2026. 06. 24.

* 이 논문은 202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Choi, Woon Sun,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woonuschoi@nsu.ac.kr

I. 서론

입양은 단발성 인생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2). 즉 입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성인 초기의 입양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자아 정체감의 확립, 진로 및 직업 선택, 친밀감 형성 등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업들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하는 동안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부모의 권위에서 상호 협력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Walkner & Rueter, 2014). 이는 본질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권위가 균등하게 분배된 새로운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거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Hoffman, 1984; Smollar & Youniss, 1989). 이와 같이 새로운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성공적인 개별화는 부모와의 높은 관계의 질, 어머니와의 친밀감 증가를 포함하여 많은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반면에 단절되거나 심각하게 분리된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불완전한 개별화는 낮은 친밀감과 낮은 가족 관계의 질과 연관이 있다(Buhl, 2008; Ingoglia, Coco, Liga, & Lo Cricchio, 2011).

이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의 궁극적 과업은 부모-자녀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발전된 ‘성인으로서의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다(Pipp, Shaver, Jennings, Lamborn, & Fischer, 1985). 하지만 입양인은 “입양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나 자신과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 입양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과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그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Grotevant & Korff, 2011). 일반적으로 입양관련 정보 탐색은 청소년기에 생각으로 시작되어 초기 성인기에 행동으로 옮겨지며(Skinner-Drawz, Wrobel, Grotevant, & Korff, 2011), 입양부모는 이전에 입양자녀가 들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미공개 입양정보를 밝히게 된다. 이는 입양자녀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려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죄책감이나 불충성함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Wrobel & Dillon, 2009). 초기 성인기 입양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 정보를 탐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입양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Brodzinsky, 1987; Wrobel & Dillon, 2009). 또한, 친생부모와의 접촉은 입양부모와 초기 성인기 자녀 관계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며, 입양부모는 자녀의 정보 탐색으로 인해 가족 관계의 질이 저하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Brodzinsky, 1997). 대부분의 가족에게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하기 위해 자녀를 집에서 떠나보내는 것(분가/독립)으로 정점에 달하지만(Aquilino, 1997; Bucx & van Wel, 2008), 입양가족이 가진 상실의 역사는 이 전환기에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Hartman & Laird, 1990), 생물학적 유대의 부재로 인해 입양자녀가 자신들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Brodzinsky, 1997).

이처럼 성인 초기 입양인이 입양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 독특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 시기의 입양부모-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며, 입양자녀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 연애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과 같은 일련의 생애 주기와 맞물려 한동안 잊혀지거나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입양 관련 이슈들이 재활성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 및 출산 등 생물학적 모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탐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인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성인 초기의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 20대 자녀는 법적,

사회적 영역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게 의존적이었던 시기를 벗어나면서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해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부모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모-자녀 내 권력 관계에 변화와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김은정, 2014).

성인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독립을 중시하고, 정체성을 탐색하며, 성인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Nelson, Padilla, Carroll, Madsen, Barry, & Badger, 2007).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청년들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자율적이라고 느끼며, 이를 통해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을 거친다(Grotevant & Cooper, 1986; Petronio, 1994). 또한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기존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Nelson et al., 2007).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원하면서도 정작 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일은 줄어들게 된다(Solomon, Warin, Lewis, & Langford, 2002).

또한 이 시기 부모와 자녀는 일방적인 돌봄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우정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와 자녀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Nelson et al., 2007). 청년들은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변하는 역할 때문에 새로운 경계선이 어디에 세워지는지(Hawk, Hale, Raaijmakers, & Meeus, 2008), 자신의 관계적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불안정함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시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적 세부 사항을 계속 공유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인식될 수 있다(Coleman & Hendry, 1990). 반면 청년들은 부모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무감과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를 털어놓아야만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성인 초기의 자녀와 부모는 서로 얼마나 의지할지 그 관계를 다시 조율해야 하며, 특히 '유대감'과 '자율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재협상해 나가야 한다(Wozniak, Lollis, & Marshall, 2013).

2.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입양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입양가족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애착 관계이다.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최초의 발달과업이 부모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며, 입양아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입양과 관련된 특수한 어려움은 입양 모자의 애착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 양육자와 한 번 이상의 분리를 경험하는 입양아동은 생애 초기 발달의 방해로 인해 새 부모와의 새로운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김외선·안재진, 2026). 실제로 많은 입양아동이 생애 초기의 상호관계 형성과정에서 한 번 이상의 실질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이 한 양육자에게서 다른 양육자로 옮겨질 때마다 발생한다(Brinich, 1980). 입양아의 애착형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영아기 초기에 입양될 경우 애착형성의 과정이 비입양가족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상당히 안정된 부모-자녀 유대로 이어진다(Singer, Brodzinsky, Ramsay, Steir, & Water, 1985). 반면에 생후 6개월 이후 배치된 아이들은 애착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반응성 애착장애를 보이기도 한다(Hughes, 1997; Nadelman, 1997). 이러한 애착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고, 의존적이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안재진, 2004 재인용). 또한 입양은 아동의 생애 초기 몇 달 이내에 확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입양이 확정될 때까지 입양부모들이 자신과 아이가 “수습기간(시험기간)”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공생단계의 특징인 밀접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이와 부모 사이에 원활한 상호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Brinich, 1980).

다음, 입양인에게 존재하는 또 다른 부모-자녀 관계상의 어려움은 분리된 충성심이다(Burtler, 1989). 입양아들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자신이 입양가족과 생물학적 가족 모두와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입양에 대한 호기심과 생부모에 대한 환상의 증가는 아동의 연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Rosenberg & Homer, 1991; Smith & Brodzinsky, 1994; 1997), 아이들은 양부모가 자신의 혈통에 대한 관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수 있으며, 특히 양부모가 생물학적 가족의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동이 알고 있는 경우, 이러한 걱정은 더욱 심해진다. 연장이 때 배치된 아동들의 경우, 분리된 충성은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이 한동안 함께 살았던 생물학적 가족이나 이전 위탁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양아는 서로 다른 두 세트의 부모, 즉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를 자기 표상 속에 통합해야만 한다(Brinich, 1980). 이러한 부모에 대한 표상은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

판타지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전형적인 가족 로맨스 가설에 따르면, 아동은 현재 함께 생활하는 부모를 비천한 양부모로 치부하는 반면, 자신의 친부모는 고귀한 신분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양아들은 생부모를 가난하거나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혼외 관계에 연루된 비천한 인물로 묘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생부모에 대한 표상은 아이가 실제로 전해 들은 사실에 근거하거나, 입양부모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신념에서 비롯된 미묘한 단서들에 기초할 수 있다. 생부모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양부모에 대한 이미지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입양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과 입양 사유에 대해 양부모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인지하거나 이를 확신하게 될 경우, 입양부모를 기만적인 인물로 규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상화된 이미지를 생부모에게로 전이시킬 수 있다. 반대로 입양아들은 생부모에 대해 형성된 비천하고 부정적인 표상을 양부모의 표상으로 전이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양육을 담당하는 두 집단의 성인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유기를 공모했다고 상상하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갔거나 혹은 자신이 탈취되었다고 믿기도 한다(Glenn, 1985).

이와 같이 입양인에게 두 세트의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영아기 대상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심리에 존재하는 ‘좋은’ 부모상과 ‘나쁜’ 부모상을 통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동일시를 이루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Simon & Senturia, 1966). 아이가 마음 속에 ‘좋은’ 부모상과 ‘나쁜’ 부모상을 통합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양부모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에 대한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의 표상들을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흔히 맞물려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입양인들은 입양 전 자신에 관한 정보와 양육 포기에 관한 질문을 얻기 위해 친생부모를 찾게 되며, 친생부모(가족)와 접촉을 포함한 뿌리 찾기는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시작된다(Schechter & Bertocci, 1990). 이러한 친생부모와의 재회 결과는 대체로 (1) 친생부모를 찾지 못함 (2) 친생부모가 입양인을 거부함 (3) 만족스러운 일회성 만남 (4) 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연락을 지속하지만 입양부모와 주된 관계를 맺음 (5) 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주된 관계를 맺으며 입양부모와도 어느 정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Auth & Zaret, 1986).

실제로 재회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Gonyo & Watson, 1988; Sachdev, 1992; Pacheco & Eme, 1993)을 살펴보면, 첫 1년 동안 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알아가는 초기 집중 단계를 거쳐, 이들을 일상적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후 연락은 점차 뜸해지며,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연락이 끊기기도 한다. 이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간의 계층 및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 관계 유지가 힘들어지거나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이다(Parish & Cotton, 1989). 재회 이후의 경로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재회 경험 자체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웠으며 가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Howe & Feast, 2001).

3. 국내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국내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 성인 입양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입양인의 생애사와 생애과정에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 이슈를 부분적으로 다룬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2)와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이들은 입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으며, 입양부모가 의심할바 없는 진짜 부모, 친부모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친생부모는 보일 듯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존재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과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였으며, 조금씩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면서 급기야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누군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하필이면 그 누군가가 자신을 낳은 부모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입양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로 남으며, 가슴속에 썩어 썩어 응어리져서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풀어지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다시 떠올라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으며, 입양됨의 이슈는 평생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인 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과 재회 경험을 다룬 연구들(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지성, 2012; 전세희·정운주, 2022)을 통해 국내 성인 입양인과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지만, 친생부모와의 첫 만남이 생각과 달리 답답하게 느껴졌으며, 만남 이후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한 충성심 갈등이 있었지만, 입양부모가 자신의 진짜 부모라고 표현하였다. 친생부모와의 관계 맺기는 관계를 거부한 한 사례, 관계가 단절된 사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례, 친생가족과 입양인이 서로 지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회를 통해 친생가족과의 연결이 시작되고 장기관계로 이어지면서 성인 입양인들은 전통적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모-자녀 관계를 기대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친

생가족과의 관계는 평범한 가족관계로 정의되기 힘든 것이었으며, 기존의 일반적 관계 모델이 재회에 맞지 않았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로 시작된 재회 관계는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맥락과 패턴 분석을 통해 성인 입양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이 된 성인 입양인들이 대학생이 되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와 친구가 되는 듯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을 출산할 당시 친생모의 나이가 된 성인 입양인에게, 친생모는 적극적인 공감의 대상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기를 낳고 키울 생각을 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것,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성인 초기의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는 ‘보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은’ 존재이며, 그 이유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친생모가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만난 후 실망할까봐, 생모를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등 다양하였는데, 대체로 성인 초기의 입양인들은 친생부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연구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이야기 이해를 목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적으로 탐구하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였다(강현석·소경희·박민정·박세원·박창언·염지숙·이근호·장사형·조덕주, 2012).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분석은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박혜영, 2014 재인용). 하나는 내러티브가 자료 수집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층위는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연구자의 해석이 더해져 연구자 내러티브로 재구성되는 경우이다. 내러티브

연구자인 리스만(Riessman, 2008)은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주제중심 분석법, 구조 중심 분석법, 상호작용적 분석으로 체계화하였다. 여기에서 주제 중심 분석법은 생성중인 상태의 내러티브에서보다는 이미 말해진 결과물로의 내러티브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강조점을 둔다. 이 방법은 다양한 이야기의 사례나 짧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공통된 주제나 내용을 귀납적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분석의 주된 관심사가 내러티브의 언어 구조의 파악이나 내러티브가 생성되는 과정 혹은 발화의 맥락과 상황, 제도나 문화적 담론이 내러티브 생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주로 내러티브 내용과 주제에 있다. 따라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공통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박혜영, 2014 재인용).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애 속에 내재된 핵심 의미를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추출하는 내러티브 데이터에 대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경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며,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소개

본 연구는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 공개입양 1세대¹⁾ 자녀들이고, 생애 초기에 유자녀가정에 입양되었으며, 친생부모를 재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사례 A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례 B는 현재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현)직업	입양 연령	입양유형	입양공개 여부	가족구조	친생부모 재회 경험
A	23세	교사	생후 1개월	유자녀 입양	공개 입양	부모, 오빠, 여동생(입양)	무
B	24세	취준생	생후 11개월			부모, 오빠 2명(친자) 여동생(입양)	

1) 공개입양 1세대란 과거 입양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처음부터 당당하게 밝히고 주변에도 공개적으로 알리며 양육하기 시작한 선구적인 부모 그룹과 그 자녀들을 의미한다. 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입양을 진행하였으며,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인식 개선 활동을 주도한 부모들과 그 자녀 세대를 뜻한다.

1) 사례 A 이야기

사례 A는 생후 1개월에 입양되었으며, 자신의 입양 사실을 5살 때 알게 되었다. 양모가 “OO아, 나는 널 낳지 않고 입양했어” 라고 말했을 때, ‘입양했어’라는 단어보다는 ‘낳지 않았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꽂혀서 “왜 엄마가 낳지 않았냐”고 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주위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입양친구들도 “너처럼 입양되었어”라는 말을 들은 후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공개입양에 앞장서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례 A는 어렸을 때부터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였으며, ‘입양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주입되었다. 사례 A는 성인이 되어야 친생부모가 자신을 키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이러한 감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양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그 후로 생모와의 분리와 상실에 따른 감정에 대해 서로 대화를 많이 하였다.

청소년기까지 사례 A는 자신의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다녔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에게 “굳이 내가 입양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상대는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공개입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알려야 하는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입양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였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공개입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입양사실을 말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굳이 친구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 부모님의 조언은 자신이 입양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례 A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모임에서 함께 놀고 자란 입양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입양으로 인해 놀림을 받을 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아주는 과정에 사이가 보다 돈독해졌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입양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특히 사춘기에 혼자서 파고들고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입양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입양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 A는 성인이 되어 이성친구를 사귄 때 자신의 입양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며, “입양가족을 처음 접해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입양

사실을 수용해주는 상대의 태도가 안전감과 편안함을 주었다고 한다. 사례 A는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입양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주신 도움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어 면접까지 이어지고 최종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입양배경과 친생부모에 대해 사례 A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생모가 혼자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입양을 신청하였으며, 10대의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조율이 잘 안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생모는 자녀를 키우고 싶었지만 생부는 입양 보내자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돌아켜보니, 그 시절의 친생부모도 한창 놀고 싶을 나이였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고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을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헤아려보게 된다.

2) 사례 B 이야기

생후 11개월에 입양된 사례 B는 4~5세 때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도 두 오빠처럼 엄마 배 속에서 나오고 싶다면, 엄마 옷 속으로 파고들려 했던 어렴풋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너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입양된 것을 자랑스럽고 특별하게 여겼다. 하지만 초·중학교 시절, 입양을 둘러싼 놀림과 오해를 겪으며 타인의 시선이 점차 부담스러워졌다. 한동안은 입양 사실을 숨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도록 두지 않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려 늘 노력하셨다. 사례 B에게 입양모는 포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보다는, 어떤 난관이든 해결해 내는 강인한 여대장부 스타일에 가까웠다. 대개 입양모가 엄한 훈육을 담당했다면, 입양부는 반대로 감정적이고 섬세하게 자녀의 마음을 다정히 공감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자식을 혼내고 돌아선 뒤, 홀로 마음 아파하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라는 존재가 대단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례 B는 사춘기에 핸드폰 사용과 통금시간 문제로 부모님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일시적으로 가출한 적도 있었다. 모든 것이 싫고 불만이었던 그 시기, ‘입양’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에게 자주 짜증과 화를 냈지만, 이를 묵묵히 받아주시는 부모님에게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한동안은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입양을 선택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뒤늦게 입양 사실을 알고 큰 혼란과 충격에 빠져 심한 반항기를 겪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부모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한 사례 B는, 이제 연세가 들고 쇠약해져 가는 부모를 바라

보며 “엄마가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를 키우겠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머지않아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고 돌보려는 성숙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례 B는 취준생이며, 여러 곳에 입사지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중이다. 일단 병원에 취직하여 5년 정도 특수파트에서 임상경력을 쌓은 뒤 제약·바이오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일반 산업체에 간호사로 들어갈 계획이다.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자신을 낳을 때 생모가 30대였다 것 말고는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하였다. 사례 B의 경우, 생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주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전공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지 못하는 당사자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2006~2020년 ‘국내 입양아동 중단연구’ 패널에 참여했던 입양 부모님 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선 연락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만 18세 이상 자녀의 참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문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20대 여성 입양인 2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참여자별 총 2회씩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로 안정된 대화가 가능한 커피숍에서 회당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녹음 자료를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전사하고, 반복독해를 통해 성인 초기 입양인의 생애 맥락과 이야기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부모-자녀 경험의 핵심 의미가 담긴 단락을 추출하되, 고유한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에피소드 구조를 유지하며 개별사례를 분석하였다. 3단계는 개별사례들을 상호 비교하여 성인 초기 입양인들이 공유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공통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4단계는 도출된 주제가 원본 맥락을 왜곡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입양가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주제를 정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자가 입양인의 삶 전체 맥락 안에서 부모-자녀 경험의 본질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석적 내러티브 형태로 기술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2명과 입양연구 전문가 1명의 검토를 받고 조언을 구한 뒤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면접 첫 회기에 연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을 마치고 난 후 연구참여자들에게 규정된 지침에 따라 경제적인 보상을 지불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사적인 정보들에 대해 공개수준을 연구참여자와 상의하여 조율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

1) 입양부모

(1) 물과 공기 같은 존재

사례 B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로 부모를 내면화하였다. 인간이 숨 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연 요소처럼, 부모의 사랑은 그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공기와 물처럼 스며들었다. 이는 부모가 없는 삶은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할 만큼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례 A에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돕는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다. 이러한 입양으로 맺어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은 입양인들이 입양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실존의 주체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예요. 제가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엄마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고, 아빠는 남한테서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분 같아요.”(사례 A)

“추상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아빠가 공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엄마는 저에게 ‘물’처럼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사례 B)

(2) 인생 멘토와 조력자

연구참여자들은 입양부모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에 조언을 구하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멘토, 인생 선배,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례 A는 어머니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인생의 조력자’로, 아버지를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지자’로 신뢰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또한 사례 B는 어머니를 단순한 훈육자가 아닌 다각적 시선을 열어준 ‘인생의 선생님’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부모가 성인 입양자녀의 시행착오를 수용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입양인에게 지적 교감과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엄마는 인생의 조력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길을 트여주는 분이시고, 아빠는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예요.”(사례 A)

“엄마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 바라보는 방법, 어떤 일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엄마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라고 적었죠.”(사례 B)

(3) 상호 돌봄의 연대

성인 입양인은 부모의 노화 과정을 마주하며 양육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주체로 변화하는, 이른바 ‘돌봄의 역전 현상’과 가족 내 역할 재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례 B는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쇠약(치매 및 질병)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과거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되돌려주는 생애 주기적 순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부모를 ‘아기’로 비유하며 ‘엄마를 다시 키우겠다’고 표현한 점은 부모의 노화를 부양의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초기 자신과 부모 사이에 존재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의 관계성을 역으로 재현하겠다는 성숙한 의지의 표현이다. 결과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의 노년기와 질병의 취약성까지 온전히 책임지려 하는 성숙한 상호 돌봄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는 제가 아기였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랑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머지 않아 내가 엄마를 돌볼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을 요즘도 느끼거든요. 엄마 혼자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치매가 오면 어떨하나? 내가 아프면 어떨하나?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항상 해줬던 말이 ‘그러면 나는 엄마가 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키우겠다(모시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사례 B)

(4) 입양 담론의 개방적 소통 파트너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입양이라는 삶의 근원적 주제와 내면의 그림자까지 함께 나누는 ‘개방적 소통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가족 안에서 ‘입양’이라는 담론이 금기나 낙인이 아닌, 언제든 꺼내어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소재의 대화가 될 때 자녀의 정서가 어떻게 치유되고 확장되는지 잘 드러난다. 사례 A의 어머니는 자녀의 복잡한 내면과 감정을 여과 없이 수용해주는 ‘안전기지’로 존재한다. 대화를 미루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입양인이 사회적 시선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내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사례 B는 입양 담론이 ‘금기의 영역’에서 ‘개방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모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이 존재했음에도, 키워준 부모가 느낄 ‘서운함’을 염려하여 스스로 방어벽을 치고 마음을 감추었다. 이는 입양자녀가 부모를 향한 충성심(Loyalty)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등 사이에서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어머니는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호기심을 부모에 대한 거부나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온전히 합리화하고 지지해주었다. 입양을 위한 개방적 의사소통의 장이 열리자, 참여자는 비로소 생모의 외모나 유전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을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영화에서는 입양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항상 엄마와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마한테 전부 얘기하고 엉엉 울면서 되게 많이 풀거든요. 엄마는 바쁘다고 조금 있다가 얘기해가 아니라 일단 다 들어주시거든요.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사례 A)

“제 입장에서는 살짝이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생각해서 잘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조심스럽게‘만나 보고 싶어?’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생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사실 저번에 낳아주신 분이 조금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서운해 할까봐 말 안했어’라고 하니, 엄마는‘전혀 그런 것으로 서운해하지 않는다. 네가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셔서 그 후로는 엄마와 자주 이야기했어요.”(사례 B)

(5) 이질감과 소속감의 줄타기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가족 안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전적 뿌리가 다르기에 발생하는 기질과 성격, 생활습관의 차이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입양부모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족 구성원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며, 가족 내에서 일상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입양)부모님과 제가 진짜 안 닮았단 말이에요. 동생은 사진이 있으니 진짜 낳아주신 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도 똑같이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동생이 친생부모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부러웠어요. ... 저 엄마랑 절대 조율이 안되는 것은 생활습관이에요. 엄마는 한번 말하면 딱딱 해주길 바라는데 저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절대 안하는 거요. 그런 면에서 엄마랑 진짜 다르구나를 많이 느껴요.”(사례 A)

또한 입양인과 입양부모 사이에는 서로가 모르는 ‘공백의 시간’이 엄연히 존재한다. 친생모의 태내에서 보낸 시간, 출생 직후와 초기 보호 상태, 입양 전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간에 대해 부모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생애 초기 정보의 부재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지식이 제한됨으로써, 입양인으로 하여금 혈통의 연속성에 대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한다(Sorosky, Baran, & Pannor, 1975). 비록 입양부모가 자녀의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태몽을 지어보게 하는’ 등 최

선을 다하지만, 이는 결국 입양인이 내면의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니까 저를 임신했을 때 어떤 태동을 느꼈는지, 태명은 무언지, 제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모르잖아요. ... 내가 생모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니깐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사례 A)

“선생님이 태몽에 대해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태몽을 꾸지 않았으니까 저는 살짝 상심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태몽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그럼 친엄마를 찾아서 알아낼 수도 없고 해서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네가 하고 싶은 태몽을 지어봐라. 이왕이면 간지나는 걸로, 좋은 걸로 네가 지어봐라.’이쁜 태몽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숭아 태몽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B)

2) 친생부모

(1) 판도라의 상자

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자신을 포기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알게 될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Schechter & Bertocci, 1990). 참여자 A에게 생모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 미스터리한 존재이며, 이는 생모에 대한 탐구가 가져올 수 있는 복합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인에게 생모는 단순히 ‘만나고 싶은 대상’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진실의 상자라고 볼 수 있다.

“친생부모는 저에게 거리감도 있고 미스터리한 존재, 판도라의 상자같은 존재이신 것 같아요. 뭔가 추측되는 것도 없고 한번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더 파내고 싶고, 연예인도 솔직히 보고 있으면 좋은데, 저 사람 혹시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닐까라고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연예인을 바라보는 느낌, 막 친해지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사례 A)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결혼은 혹시 하셨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김새도 궁금해요.”(사례 B)

(2) 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생부모와 관련된 단편적인 기록이나 정보는 현재 자신의 존재적 기원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비어 있는 정체성의 공백을 메워 비로소 ‘온전한 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의 탐색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A는 자신의 입양된 이유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정보는 입양인이 가질 수 있는 생모로부터의 거부감이나 상실감을 완화하는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나아가 “나랑 닮았을까”라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근원적 의문은, 혈연적 유사성을 확인하여 자신의 신체적·기질적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반영한다. 사례 B는 생애초기 정보의 극심한 단절로 인해 자아의 역사에 거대한 빈칸을 남긴다. 참여자가 생모의 유전적 건강 상태를 궁금해하고 “혹시 살아계실까”를 되뇌며 추적을 갈망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신체적 발달과 건강, 나아가 미래의 삶을 예측하기 위한 실존적 지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생모 혼자 와서 입양을 신청했는데, 엄마가 17살, 아빠가 19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조율이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생부는 저를 키우자 이런 것보다 입양 보내자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생모는 키우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되니까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나랑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사례 A)

“저를 낳을 때 30대였다 이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 유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궁금했던 것 같은데 ‘나랑 닮았을까? 나를 낳아주신 생모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살아계실까?’ 그때 찾아보고 싶었어요.”(사례 B)

(3) 친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

성인 입양인의 생모에 대한 감정은 대체로 유년기의 파편화된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성인의 시선으로 현실적 어려움과 입양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생명을 지켜준 생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뿌리를 삶의 온전한 한 부분으로 수용하게 만든다. 사례 B는 성인이 된 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의 맥락을 인지하게 되면서 생모의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을 ‘나를 지켜준 시간’으로 재해석하였다. 한편 사례 A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무게를 성인의 관점에서 체감하며, 미성년자였던 친생부모의 입양 결정을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로 재정의하면서 생부모와의 심리적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다.

“(생모에 대한) 생각도 주기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원망했던 것 같아요. 책임을 못 질거면 왜 낳았을까? 그럴거면 아예 낙태를 하지. 아니면 피임을 하면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되었는데, ... 여성이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보면 몸이 엄청 상하는데 다양한 합병증도 오고 10개월을 품고 있는 것이 엄청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낳아주신 생모가 10개월동안 날 지켜준 것이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사례 B)

“지금 입장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큰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컸을 것 같아요. 한참 놓고 싶은 시기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도 해야 하고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였어도 회피했을 것 같아요. 성인인 저도 애 키우기 무서워서 그런데, 미성년자인 친생부모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사례 A)

(4) 막연한 재회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고민, 취업 준비와 경력 쌓기 등 생애 과업으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생모와의 재회를 향한 적극적 탐색보다 이를 심리적으로 유예하거나 당분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생애 전환점을 맞이할 때 비로소 친생부모와의 재회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유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재는 관계가 끊겨 있고 친생부모와의 재회의 기약이 막연하지만, 미래의 삶(결혼, 출산) 안으로 초침함으로써 단절되었던 생애 사슬을 연결하고자 한다.

“제가 결혼준비를 하거나 애를 낳으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임신해서 애를 키울 때 생모를 엄청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A)

2.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입양인이 경험하는 부모-자녀 관계를 내러티브 방식으로 탐구하였으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전통적인 통념을 깨고, 입양 부모-자녀 관계는 ‘물과 공기’처럼 스며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유대감을 통해 서로를 지탱해 주는 선택과 헌신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혈연을 넘어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며, 가족의 개념이 유전적 연속성이 아닌 사랑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대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대부분의 성인 입양인들이 입양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으며, 입양부모가 의심할바 없는 진짜 부모, 친부모로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안재진 등, 201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성인 입양인은 입양부모를 ‘물과 공기’ 같은 존재에서 ‘인생의 멘토와 조력자’, 더 나아가 ‘상호 돌봄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년이 된 성인 입양인들은 대학생이 되고 독립된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와 친구가 되는 듯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었다(권지성 등, 2021). 이처럼 입양부모-자녀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가 교차하며 일어나는 끊임없는 재조정의 과정이며, 일방적인 수혜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수평적 관계를 거쳐 상호 책임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가족 내 개방적인 입양 담론을 통해 성인 입양인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말하는 주체’이자 역사적 연속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입양인은 길러준 입양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입양인은 입양부모의 지지와 수용을 기반으로 분절되었던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해나감으로써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넷째, 성인 입양인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친생부모의 존재를 성인의 시선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원망과 분노에서 이해와 용서로 이어지는 심리적 화해를 이루어낸다. 어느덧 자신을 출산할 당시 친생모의 나이가 된 성인 입양인에게, 친생모는 적극적인 공감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린 나이에 홀로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준 것,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권지성 등, 2021). 이러한 심리적 화해는 과거의 유기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해방됨과 그 아픔을 온전히 품어 안는 내면의 성숙을 의미한

다. 성인 입양인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입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인은 “입양된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나 자신과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온전한 자아 정체성에 통합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록 친생부모와의 재회 및 이들과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성인 입양인은 존재론적 기원이 되는 친생부모라는 ‘판도라의 상자’ 열게 됨으로써 안에 있는 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아 정체성의 단절된 고리를 잇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성인 입양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서사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기 자녀를 둔 입양가족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입양인의 독립,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과업과 입양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입양사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 부모로부터 정서적·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성인기 심리적 고립감을 완화할 전문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취업과정(이력서 작성, 면접, 서류 제출)에서 입양배경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겪는 낙인감과 심리적 위축을 예방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입양이슈를 다루기 위해 부부상담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입양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과정에 친생가족의 유전적 병력을 알지 못해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과 친생부모에게 느꼈던 거부나 유기 및 상실의 감정이 재발현될 때, 이를 건강하게 애도하고 수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인기 입양 자녀의 적극적인 뿌리 찾기(친생가족 탐색) 과정을 지원하는 입양가족 심리지원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다. 성인 입양인이 양부모에 대해 ‘충성심 갈등’을 겪지 않도록, 입양부모는 자녀의 친생부모 탐색 행위가 현재의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녀의 알 권리와 탐색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지지해야 한다. 나아가 자녀가 친생부모를 만나는 과정이나 재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절감, 실망감 등의 복잡한 감정을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개방적 의사소통이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성인기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상봉 및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 유지를 지원하는 전문 재회(Reunion)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재회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관계 재정립 과정이므로, 재회 전 친생가족과의 문화적·환경적 차이를 이해하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사전 심리 완충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과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 혹은 재거절로 인한 2차 심리적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가 개입하는 ‘재회 후 사후관리(Post-Reunion)’ 서비스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인기 입양인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입양인들이 독립,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별 전환기에서 겪는 공통의 관심사와 고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선후배 입양인을 매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공간 제약 없이 정보와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성인 입양인 지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 입양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양인은 자신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그들의 인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 정보이기도 하지만 입양인의 알 권리 대상이기도 하기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친생부모 사망 시 제약 없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미동의 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공개여부 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13). 성인입양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83-107.
- 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2021). 성인 입양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8(1), 63-101.
- 김외선·안재진(2026). 입양부모 양육태도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 **부모교육연구**, 23(1), 5-36.
- 김은정(2014).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지성(2012). 국내 성인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115-135.
- 박혜영(2014).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 탐구. **국어교육학연구**, 49(2), 163-191.
- 안재진 역(2004). **입양아동의 적응**.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 1998, Children's Adjustment to Adoption. 홀트아동복지회.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2012). 성인입양인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8, 67-97.
- 전세희·정은주(2022). 국내 성인입양의 친생가족 재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사회복지질적 연구**, 16(1), 5-27.
- 강현석·소경희·박민정·박세원·박창언·염지숙·이근호·장사형·조덕주 역(2012).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Clandin, D. J. 2004, Han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서울: 교육과학사.
- Aquilino W. S.(1997). Adolescent to young adult: A prospectiv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3), 670 - 686.
- Auth, P. J., & Zaret, S. (1986). The search in adoption: A service and a process. *Social Casework*, 67, 560-568.
- Brinich, P. M. (1980). Some potential effects of adoption on self and object representation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5, 107 - 133.
- Brodzinsky, D. M. (1987). Adjustment to adoption: A psychosoci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1), 25 - 47.
- Brodzinsky, D. M. (1997). Infertility and adoption adjustment: Considerations and clinical issues. In Leiblum, S.(Eds.), *Infertility* (pp.246-262).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 Henig, R. M. (1993).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Anchor Books.
- Bucx, F., & van Wel, F. W. (2008). Parental bond and life course transition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dolescence*, 43(169), 71 - 88.

- Buhl, H. M.(2008). Significance of individuation in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29*(2), 262-281.
- Burtler, I. C. (1989). Adopted children, adoptive families: Recognizing differences. In Combrinck-Graham, L.(Eds.), *Children in family contexts* (pp.161-186). New York: Guilford Press.
- Coleman, J. C., & Hendry, L. (1990). *The nature of adolescence*(2nd ed.). Florence, KY: Taylor & Francis.
- Gladstone, J., & Westhues, A. (1998). Adoption reunion: A new side to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7*(2), 177-184.
- Glenn, J.(1985). Discussion: The adopted child's self and object 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11*, 309-313.
- Gonyo, B., & Watson, K. W. (1988). Searching in adoption. *Public Welfare, 46*(1), 14-22.
- Grotevant, H. D. & Korff, L. V. (2011). Adoptive identity, In Schwartz, S. J., Luyckx, K., & Vignoles, V. L.(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585-601),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 Grotevant, H., & Cooper, C.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2), 82-100.
- Hartman, A., Laird, J. (1990). Family treatment after adoption: Common themes. In Brodzinsky, D., Schechter, M.(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221-2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wk, S. T., Hale, W. W., Raaijmakers, Q. A. W., & Meeus, W. (2008). Adolescents' perceptions of privacy invasion in reaction to parental solicitation and contr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 583-608.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 - 178.
- Howe, D., & Feast, J. (2001). The long-term outcome of reunions between adult adopted people and their birth mother.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3), 351-368.
- Hughes, D. (1997). *Facilitation developmental attachment*. Northvale, NJ: Jason Arosen.
- Ingoglia, S., Coco A. L., Liga, F., & Lo Cricchio, M. G. L.(2011). Emotional separation and detachment as two distinct dimension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3), 271 - 281.
- Nadelman, A. (1997). Assista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impaired adopted children. *New Jersey Psychologist, 47*, 27-29.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Carroll, J. S., Madsen, S. D., Barry, C. M., & Badger, S. (2007). "If you want me to treat you like an adult, start acting like one!" Comparing the criteria that emerging adults and their parents have for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665-

674.

- Pacheco, F., & Eme, R. (1993). An outcome study of the reunion between adoptees and biological parents. *Child Welfare, 72*(1), 53-64.
- Parish, A., & Cotton, P. (1989). *Original thoughts: The view of adult adoptees and Birthfamilies following renewed contact*. Barnardos London.
- Petronio, S. (1994). Privacy binds in family interactions: The case of parental privacy invasion. In W. R. Cupach & B. Spitzberg(Eds.), *The dark sid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241 - 258). Mahway,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ipp, S., Shaver, P., Jennings, S., Lamborn, S., & Fischer, K. W. (1985). Adolescents' theor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91-1001.
- Pipp, S., Shaver, P., Jennings, S., Lamborn, S., & Fischer, K. W. (1985). Adolescents' theor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991-1001.
- Riessman, C. K.(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Rosenberg, E. B., Homer, T. M., Macedo, C. A., Fischer, C., & Harris, W. R. (1991). Psychopathology in hospitalized adopted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5), 628-631.
- Sachdev, P. (1992). Adoption reunion and after: A study of the search process and experience of adoptees. *Child Welfare, 71*(1), 53-68.
- Schechter, M. D., & Bertocci, D. (1990). The meaning of the search. In Brodzinsky, D. & Schechter, M. (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 62-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 N. M., & Senturia, A. G. (1966). Adoption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2*(8), 858-867.
- Singer, L. M., Brodzinsky, D. M., Ramsay, D., Steir, M., & Water, E.(1985). Mother-infant attachment in adoptive families. *Child Development, 56*(6), 1543-1551.
- Skinner-Drawz, B. A., Wrobel, G. M., Grotevant, H. D., & Korff, L. V. (2011). The role of adoption communicative openness in information seeking among adoptees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1*(3), 181 - 197.
- Smith, D. W., & Brodzinsky, D. M. (1994). Stress and coping in adoption: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91-99.
- Smith, D. W., & Brodzinsky, D. M. (1997). Coping with birthparent loss in adopted childre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mollar, J., & Youniss, J.(1989). Transformation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71 - 84.
- Solomon, Y., Warin, J., Lewis, C., & Langford, W. (2002). Intimate talk between parents and their teenage children: Democratic openness or covert control? *Sociology, 36*(4), 965 - 983.

- Sorosky, A. D., Baran, A., & Pannor, R. (1975). Identity conflicts in adopte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1), 18-27.
- Walkner, A. J., & Rueter, M. A.(2014). Adoption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877 - 886.
- Wozniak, A., Lollis, S., & Marshall, S. K. (2013). Competing discourses within parent-adolescent convers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6), 847 - 867.
- Wrobel, G. M. & Dillon, K. (2009). Adopted adolescents: Who and what are they curious about?. In Wrobel, G., Neil, E.(Eds.), *International advances in adoption research for practice* (pp.217-244). West Sussex, U. K: Wiley-Blackwell.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Emerging Adult Adoptees

Choi, Woon Sun*

Using a narrative inquiry approach, this study explore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domestic adoptees in emerging adulthood in South Korea, deeply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these relationships as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female adoptees in their twenti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arr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categorized the relationships with adoptive parents into five themes: 'an existence like water and air,' 'life mentors and helpers,' 'solidarity of mutual care,' 'open communication partners in adoption discourse,' and 'tightrope walking between alienation and belonging.' Furthermore, regarding the internalized representations of birth parents in the adoptees' minds, four themes were derived: 'Pandora's box,' 'the final puzzle piece' that completes oneself, 'psychological reconciliation with birth parents,' and 'vague reunio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adoptive families with children in young adulthood.

Keywords: emerging adult adoptees, parent-child relationships, adoptive parents, biological parents, narrative inquir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welfare, Namseoul University